



●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차관 방문

지난 7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김중현 차관이 출연연구기관의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고자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행사에서 박석재 원장은 대형 광학망원경(GMT : Giant Magellan Telescope) 개발 사업과 동아시아 VLBI 연구센터 구축 및 위성레이저추적(SLR : Satellite Laser Ranging)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상황 등 주요현안 중심의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김중현 차관은 "2009 세계 천문의 해" 행사 추진에 대한 우리 연구원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지난 7월 22일의 일식행사가 우리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 연구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외계행성 탐색에 활용되는 기술이 국방에도 응용 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내었다. 한편, 우주환경감시센터 시찰에서는 나로호(KSLV-1)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우주환경 관련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금번 방문행사와 같은 계기를 통해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과학기술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천문연-엔에이치엔(주) 협약식



지난 7월 14일 우리 연구원은 네이버를 통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에이치엔(주)와 함께 천문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천문자료의 활용 확산 및 천문 관련 자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미 우리 연구원과 엔에이치엔(주)은 '2009 세계 천문의 해'가 시작하는 첫날,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된 해오름 공개 관측 행사에서 일출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에게 천문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천문관련 기관의 지도를 구현하고, 온라인 천체사진전 등을 통해 천문 대중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2단계 간부직원 워크숍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28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박석재 원장을 비롯한 팀장·그룹장 이상의 간부직원 및 선도핵심연구사업 연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단계 [중장기 발전전략 혁신 로드맵 수립]을 위한 간부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관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서 박석재 원장은 '정책제언'을 통해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전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박필호 선임연구부장은 2006년 제1단계 로드맵 수립에 이어 현재 시점에서 '제2단계 중장기 발전전략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함께 '대형R&D 사업 확보'와 '선도연구그룹 육성' 전략과제 사례를 들어 '10년 후 세계적 수준의 KASI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사회적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 강화' 등 총 10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2단계 [중장기 발전전략 혁신 로드맵] 초안 설명, 박기준 KeytoS 대표이사의 컨설팅 및 참석자 전원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천문(연)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천문연-YTN 협약식

우리 연구원은 지난 6월 30일, (주)YTN(사이언스TV)과 '과학방송' 운영에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루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과학방송 운영과 과학프로그램 제작, 국내외 과학축전 및 과학 행사에 동반 참가하는 등 과학문화 확산 활동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적극 합의하였다.

● CMB 우주축제 개최



지난 7월 25일, 26일 양일간 대전 꿈돌이랜드에서 "CMB 우주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우리 연구원과 대전광역시 교육청, CMB 대전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2009 세계 천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와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조직위원회가 후원하였다.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와 국제우주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 행사는 기존의 별 축제와 달리 여러 가지 참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였다. 특히 교육감 표창이 걸려 있는 '대전광역시 우주왕' 선발대회는 일반인이 참가하여 3단계로 진행되었다. 왕의 무대에서는 조정철 박사의 '이폴로 박사 40년' 과 음악과 강연을 결합한 '5인조 밴드의 천문학 강연'이, 여왕의 무대에서는 천체사진 '우주에서 본 지구(FETTU)'와 태양계 중

● 카가야(KAGAYA) 천문일러스트전시회

우리 연구원은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기념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시관에서 '카가야 천문 일러스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세계적인 천문 일러스트레이터 카가야(KAGAYA)는 일본의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환상적인 별자리와 신화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소개해 왔다. 특히, 1996년에 발표한 'the Zodiac-12 별자리 시리즈'가 베스트셀러 직소퍼즐이 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의 대표작인 'the Zodiac-12 별자리 시리즈'를 비롯하여 'Celestial Exploring' 등 100여점의 작품이 국내 최초로 전시된다.



력저울이 전시되었다. 그밖에 유명 SF 만화 작가들의 사인회와 캐리커처 및 페이스페인팅을 선보였다. 야간 행사에는 이동천문차량 스타-카(Star-Car)와 소형 천체망원경을 통해 천체관측이 진행되었다.

● 갈릴레오 교원천문연수



우리 연구원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의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2009 갈릴레오 하계교원천문연수"를 시행하였다. 교원천문연수는 교원들에게 최신의 천문학 지식 보급은 물론, 평소 접할 수 없어 어렵게 느껴지는 천문학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연수프로그램이다. 199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동계와 하계 방학 기간 동안에 초등과 중등 각각 2기로 나누어 2박 3일 동안 18시간의 강의로 진행된다. 수업 내용은 크게 이론과 실습, 두 가지로 나뉜다. 이론 수업에서는 고 천문학을 비롯하여 태양계, 별, 은하와 우주에 걸쳐 일반 천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실습은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과 망원경 사용법을 숙지하여 직접 관측을 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에는 초등부에 77명과 중등부에 69명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인턴사원 9명과 일반인 6명도 이번 연수에 참석하였다.